

목차

들어가기

#1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던 순간들

#2

영상으로 보는
그간의 작품들

#3

Interview
극단 달나라동백꽃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

팔로우스팟 Followspot 달나라동백꽃 연출가 부새롬 편

들어가기

공연 연계 프로그램 「팔로우스팟 Followspot」이 이번엔
달나라동백꽃 과 **연출가 부새롬**,
그리고 **<달콤한 노래>** 를 비춰봅니다.



[팔로우스팟 Followspot] 달나라동백꽃 연출가 부새롬 편

아래의 목차를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작품세계읽기 1]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던 순간들 (글 김은성)

#2 [작품세계읽기 2] 영상으로 보는 그간의 작품들

#3 [작품세계읽기 3] Interview_극단 달나라동백꽃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 (글 최윤우)

달나라동백꽃은 2011년 창단 공연 <달나라 연속극>을 시작으로 2012년 <로퐁찬 유랑극장>, 2013년 <이건 노래가 아니래요> <파인애플큐앤드유> 2014년 <뽕뽕뽕>, 2015년 <아이엠파인투>, 2016년 <연변엄마> <앞집아이> <안티고네 2016> 2017년 <검은 입김의 신>, 2018년 <썬샤인의 전사들> <로퐁찬 유랑극장>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부새롬 연출은 2021년 국립극단 <햄릿> 온라인 상영, 2020년 연극열전 <마우스피스>, 2018년 서울시극단 정기공연 <그 개>,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 <2센치 낮은 계단> 등을 연출했습니다.

여러 번 공연되며 달나라동백꽃의 이름을 알려온 그 간의 작품들과,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작 <달콤한 노래>를 통해 달나라동백꽃과 부새롬 연출의 작업들을 만나볼까요.

목차

들어가기

#1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던 순간들

#2

영상으로 보는
그간의 작품들

#3

Interview
극단 달나라동백꽃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

작업세계 읽기 1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던 순간들

글 김은성(극작가)
서면질의 강훈구(극작가, 연출가)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던 순간들 -연출가 K와의 서면 인터뷰

Q.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2011년 8월 8일.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성북세무서에서 극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던 날입니다. 그해 초에 부세롬 연출과 극단을 만들기로 하고 뜻을 함께하는 배우들 몇몇과 어울리며 작업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극단을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창단공연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달나라연속극>을 준비하면서 지원금 신청, 대관 계약 등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지금 돌아보면 하나하나 처음 부딪혀보는 일들을 겪는 시간이었어요.



2014 <로풍찬 유랑극장> 기념사진

등록증에 찍히는 날이 극단 창단일이 되는 거니까 좋은 느낌이 나는 날을 고르고 싶었어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극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8월 8일을 기다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세무서에 갔습니다. 혹시 서류가 미비해서 다른 날로 밀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따끈따끈한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간 액자에

넣어서 단원들을 만나러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날 저녁에 석관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집에서 창단기념식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네요.

Q. 극단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극단 이름 짓는 거 진짜 힘든 일이죠. 이름을 짓다가 창단을 포기하는 모임도 꽤 될 거예요. 저도 학생 때 극단을 만들기로 한 친구들이랑 이름 짓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구성원 모두의 연극적 방향성과 각자의 취향과 감각이 잘 담겨야 하는 거죠.

달나라동백꽃을 지을 때도 진통이 없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동백꽃이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었고 부새롬 연출은 달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었죠. 딱 맞는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달과 동백꽃이 합쳐진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죠. 부새롬 연출의 아이디어로 기억해요.



달나라동백꽃

달나라동백꽃 로고

Q. 연출가와 작가가 극단의 공동대표를 맡는 경우는 찾기 힘들습니다. 극단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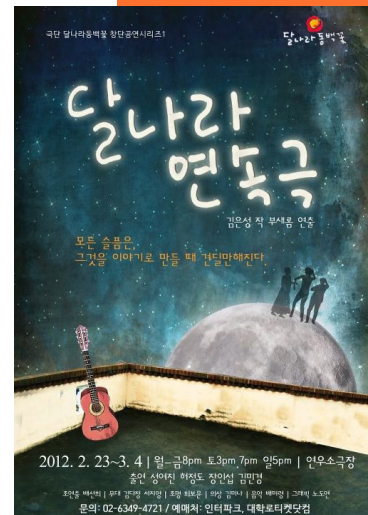
단원들 중에 가장 선배인 둘이 자연스럽게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상의 대표는 부새롬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그렇게 찍혀있고요. 새롬 연출은 주로 극단 살림을 운영했고 저는 이런저런 극단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원서, 보도자료 작성 등은 함께 했고요.

둘이라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의욕이 넘쳤어요. 이거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다짜고짜 일을 만들면 새롬 연출이 잘 수습했어요. 예산 계획, 재정 운영과 정산을 비롯해서 극단의 온갖 굵은일을 새롬 연출이 도맡았어요. 묵묵하게 극단을 꾸려가는 역할을 한 거죠.

Q. 극단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언제였다고 생각하나요? 극단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연우소극장에서 <달나라연속극>을 공연했을 때가 생각나요. 단원들 모두가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해서 신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연 개막일에 너무 긴장해서 급성 위염에 걸리기도 했어요. 학생 시절의 꿈이 연우소극장에서 공연 한 번 해보고 죽는 거였거든요.

2012년 봄에 초연을 올린 이후에 13년과 14년에 재공연을 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이 나면서 관객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연우소극장에서 혜화파출소까지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던 관객들을 어떻게 잇을 수 있겠어요? 보조 객석도 부족해서 입장이 어려워진 관객을 모시고 오퍼실에서 함께 봤던 적도 있었어요.



2012년 <달나라 연속극> 초연 포스터

Q.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로풍찬 유랑극장〉과 〈썬샤인의 전사들〉도 잊을 수 없는 작업이지만 딱 하나를 꼽자면 〈뽕뽕뽕〉입니다. 보편적 서사구조를 갖춘 이전의 희곡들과는 다른 결을 가진 실험적인 작품이었어요. 직전의 극단 작품 〈파인애플큐앤드유〉를 단원들과 함께 공동창작으로 만들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 구조에서 벗어난 대본이 무대화되는 과정을 경험한 이후 큰맘 먹고 새로운 희곡 쓰기에 도전한 작업이었죠. 한국사의 여러 대목을 우화적 장면들로 만든 일종의 옴니버스 극이었어요. 2014년 당시의 우울한 정치적 상황을 진지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기존의 제 희곡들과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작품이 나왔는데 작가의 변화를 새롭고 연출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대체로 대본이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평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가장 시원한 작업으로 남아 있어요. 남산예술극장에서 낭독공연으로 처음 선보이던 날이 생생합니다. 객석 뒤쪽 기둥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평가를 의식하며 눈치 보면서 썼던 작품이 아니라 진짜 내가 쓰고 싶은 작품을 발표했을 때의 그 희열을 잊지 못해요.

Q. 연극 작업이 없을 때 극단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극단의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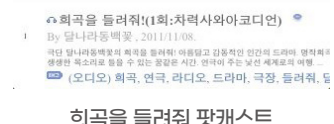
평소에도 자주 모였어요. 단원이기 전에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30대를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 스승들이네요. 매년 늦가을이 되면 김장을 함께 했었어요. 옹기종기 후배의 자취방에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보쌈을 만들어 놀다가 늦은 밤에 김치가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돌아오면 마음이 참 포근했어요.

공연이 없을 때면 단원들과 이런저런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2013년 연희문학창작촌 가을문학축제 때 독백쓰기 백일장을 주최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놀랐었어요. 대전에서 왔던 고등학생들도 생각나요. 장원을 받았던 60대 할머니의 독백도 떠오르네요. 극단 내 워크숍으로는 한국사 스터디와 희곡 창작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배우들이 희곡을 한 편씩 써서 팟캐스트 〈희곡을 들려줘〉를 통해서 낭독공연으로 발표했었어요.

Q. 〈희곡을 들려줘〉 팟캐스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나요?

〈희곡을 들려줘〉는 2011년 11월에 장우재 작가의 〈차력사와 아코디언〉을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약 5년 동안 이어진 희곡 낭독 팟캐스트입니다. 격주 발행으로 수십 편의 희곡을 청취자들과 함께 했었어요. 달나라동백꽃 창단 이후 극단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팟캐스트를 모르는 분이 없지만 〈희곡을 들려줘〉를 처음 구상했던 10년 전에는 팟캐스트가 아주 생소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산책길에 〈나는 꿈수다〉 〈책 읽는 시간〉 같은 팟캐스트를 재밌게 듣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원들끼리 모여서 희곡을 읽는 시간을 그대로 녹음해서



방송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라디오드라마처럼 열심히 공을 들여서 효과음향을 삽입하고 NG가 난 부분은 편집도 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연습실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 나름의 재미가 충분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처음 제안했을 때는 단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저작권 해결, 녹음실 대관 등등 풀어야 할 과제에 비해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신생 극단을 알리기에 그만한 광고효과도 없다며 설득했습니다. 한 회 제작비를 20만 원으로 책정, 극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10회차가 넘어가면서 예술 분야 청취율 4위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무료로 희곡을 제공해주신 작가님들과 밥 한 끼로 기꺼이 출연에 응해주신 배우님들, 최소한의 경비로 녹음을 진행해주신 기사님들 덕분에 5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오래 했으면 좋았으련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컸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청취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Q. 최근에는 달나라동백꽃에서의 작업이 뜸하신데?

달나라동백꽃과의 작업뿐 아니라 제 작품이 뜸한 상태죠. 솔직히 말하자면 슬럼프. 스스로는 좋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더 성숙한 작가가 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작품의 소재, 메시지, 형식 등등 고민이 길어지네요. 체질 변화를 잘해서 싱싱한 희곡으로 달나라동백꽃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극단에 진 빛이 많아요. 마음의 빛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빛이 있어요. 한 400 되려나? 사정이 어려울 때 극단 통장에서 조금씩 빌려다 쓴 건데,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본료 두둑하게 받거나 어디서 상금 좀 받으면 값으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네요. 정성이 담긴 좋은 작품으로 값아야겠어요. 묵묵하게 극단을 이끌어가는 새롬 연출과 후배들이 동백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은은한 달빛을 비추고 싶어요. 관객 여러분과 얼른 다시 만나고 싶어요.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는 그 순간, 극장에서 만나요.



독백 쓰기 백일장 당시 김미나 디자이너와 이상홍 작가가 제작한 상품



들어가기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던 순간들



영상으로 보는
그간의 작품들



Interview
극단 달나라동백꽃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

작업세계 읽기 2

영상으로 만나는 그동안의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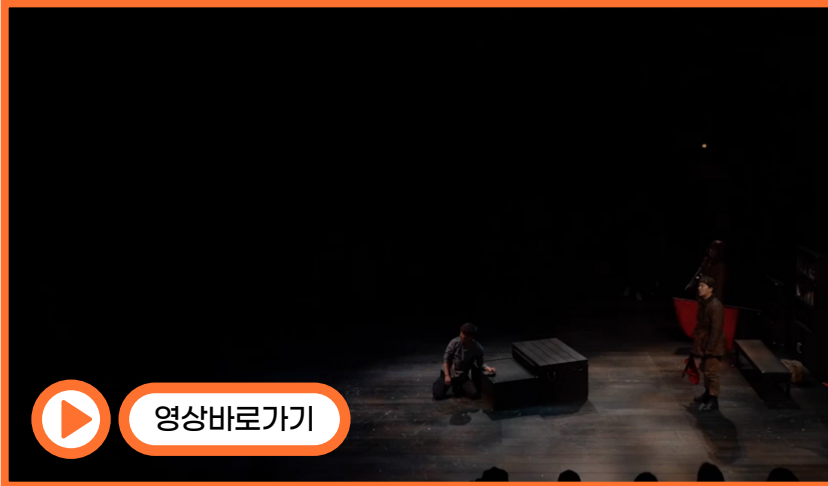
달나라 연속극



2011년 6월 초연된 <달나라 연속극>은 링크지 프로젝트 2011(구 LIG아트홀 부산, 2011.12.22-24)를 통해 선보인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연우 소극장 무대에 올랐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연합 연극교류 축제인 베세토연극제 2014년 한국 참가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달나라 연속극>은 테네시 윌리엄스 작 <유리 동물원>에서 모티브를 얻어 김은성 작가가 재창작한 작품으로 화제가 됐다. <유리동물원>의 인물들이 점점 극단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거대도시의 인물 군상을 닮아 있음에 착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빚어낸 그늘이자 소외계층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내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계층들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나타냈다.

**“모든 슬픔은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 때 견딜만해진다.”**



〈썬샤인의 전사들〉은 2016년 두산아트센터 space111(2016.9.27-10.22)에서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인 김은성 작가의 신작으로 발표됐다. 2018년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2018.11.28-12.1)과 CKL스테이지(2018.12.8-12.30)에서 재공연됐다. 〈썬샤인의 전사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사건들을 통해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 남은 이의 부채의식 등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기 소설가 한승우는 3년전 일어난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절필한다. 그를 쫓아다니는 의문의 상자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꿈에 나타난 봄이의 부탁으로 어렵게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소년병 선호의 수첩이 흘러간 여정이 승우의 소설을 통해 펼쳐진다. 수첩의 여정이 끝에 다다르면서 승우는 또 한 명의 상자 속에 갇힌 이를 만나게 된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다음
이야기를. 너의 다음 문장을.
어서 뚜껑을 열어줘. 다시 이름을 불러줘.”*

로풍찬 유랑극장



〈로풍찬 유랑극장〉은 2012년 연주소극장(2012.10.11-11.4)에서 초연됐다. 2014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2014.10.16-10.19)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2014.10.23-11.2)에서 다시 공연됐다. 2018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로 선정되었으며 CKL스테이지(2018.2.8-2.25)에서 관객들을 다시 만났다.

〈로풍찬 유랑극장〉은 1945년 해방에서 1950년 전쟁까지의 시간을 새재마을의 하룻밤 사건으로 응축시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연극은 빨치산과 토벌대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전개되고 있는 새재마을에 도착한 한 유랑극단을 통해 전쟁과 인간, 삶과 연극을 돌아보게 한다.

왜 하필 연극인가?

학살과 복수가 반복되는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은 묻는다.

"연극 안 본다고 굶어죽느냐?"

배우들은 답한다.

"연극은 사람이 왜 먹고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거다. 쌀보다 진귀한 거다."

목차
들어가기

#1
동백꽃이 달빛처럼
피어나던 순간들

#2
영상으로 보는
그간의 작품들

#3
Interview
극단 달나라동백꽃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

작업세계 읽기 3

극단 달나라동백꽃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

글 최윤우 (연극평론가)
parodia@naver.com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개별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절이기에 ‘공동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극단 역시 그 이름을 유지하기에도 벅차다. 더욱이 그 이름이 지닌 의미를 잃지 않고 지속한다는 것에는 보다 많은 견담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2011년 창단 이후 매년 지속해서 관객을 만나온 달나라동백꽃도 마찬가지다. 창단공연이었던 <달나라 연속극>이 호평을 받으며 주목받았던 이후 극단의 작업은 쉼 없이 이어졌다.

<로풍찬 유랑극장>, <별>, <파인땡큐앤드유>, <이건 노래가 아니래요>, <뽕!뽕!뽕!>, <아이엠파인트>, <검은입김의 신>, <썬샤인의 전사들> 등 선보였던 작품들마다 극적 상상력을 품고, 부조리한 사회의 이면을 소시민의 일상으로 풀어냈던 이야기는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고, 그것은 극단이 제 이름을 갖고 지속하는 힘이 되었다.

2021년 8월, 어느덧 극단이 10년이라는 쉽지 않은 세월을 품을 때까지, 그 지난한 과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부침을 겪어가면서도,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신작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은, 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설렌다. 그간 어떻게 지냈을까 하고.



달나라동백꽃은 참 흥미로운 극단이다. 2011년 창단했으니 이제 10년을 맞은 극단인데, 얼핏 한 20년 정도는 활동해온 듯한 '중진스러운(?)' 느낌이 있다. 혹자는 대표자가 늦게 데뷔를 해서 그런 것 같다는 농도 건네지만, 더 그럴싸한 이유는 창단공연 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오랜 전사(前史)가 있었을 것 같다는 예측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하고, 정말 좋은 기회와 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작품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금방 중견이 된 듯한(?) 느낌이 있었죠. 함께 작업했던 김은성 작가 특유의 색깔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극단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죠, 지금은 다 어디로들 가셨지만(웃음).

올해로 극단이 10년이 되었네요. 그간 우리가 했던 작품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2018년 무렵 극단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단원들이 독립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 색깔을 찾아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해서 지금은 저하고 배우 네 명, 다섯 명이 단원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사이에서도 단원을 늘리지 말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단원이 아니어도 같이 작업을 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사실 단원을 늘리는데 마음이 선뜻 움직여지지는 않더라고요.”

프로덕션 작업이 한참 많아지던 시절, 극단 작업인 듯 아닌 듯 경계에 걸쳐 있는 작품도 많았다. 한 동안 또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약간의 숨이 필요했던 부채춤 연출은 2019년, 1년을 쉬기로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우연찮게 소설 <달콤한 노래>를 만났다.

“희곡이 있으니까 분석하고 캐스팅하고, 7주전 만나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어느 순간 관성대로 작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시선으로 텍스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년 동안 단원들하고 쉬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등산도 하고... 마치 동호회처럼 1년을 보냈는데, 당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다음에 할 작품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 소설을 만났죠. 다른 거 찾다가 링크타고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가 사실 '범죄'에 관심이 많아요.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읽었는데 재밌었죠. 작가한테 의뢰에서 각색하고 희곡화된 텍스트를 받는 것보다 배우들과 장면을 만들면서 각색 해보자고 생각했고, 작년에 쉽지 않은 워크숍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 공연이 올라갑니다.”

작품분석을 하고, 구조를 상상하며 장면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표현이 막힌 시간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왜 이 작품을 하지?” 원점으로 돌아간 적도 많다는 부새롬 연출은 그게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 아이디어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본다.

그 작품이 바로 1903년 제정된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공쿠르상 2016년 수상작인 레일라 스리마니의 <달콤한 노래>다.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17년 번역, 출판되었다. 제목은 ‘달콤한 노래’지만, 제목이 주는 즉각적인 인식과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은 첫 문장부터 시작된다. “아이가 죽었다. 단 몇 초 만에”

“

이 소설은 첫 장면이 강렬해요. 보통 이런 작품들, 사건이 이미 벌어진 작품들은 읽어가면서 누가 범인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회고발 프로그램이나 범죄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범죄의 가해자를 중심으로 원인을 찾아가고, 어떤 것 때문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예측하여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답일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람은 어떤 순간에 그렇게 악해질까? 그 근원에는 어떤 게 있는 걸까?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작에는 중심 서사 말고도 여러 층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흔히 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육아, 저희가 표현하기 어려워서 공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종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 작품이 무언가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죠. 다양한 상상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

변호사 미리암, 음악 프로듀서 폴. 적절한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중산층으로 두 아이를 둔 부모다. 육아에 심각하게 지쳐가던 미리암은 우연히 만난 동창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고, 부부는 보모를 들이기로 했다. 까다로운 면접을 거쳐 고용된 보모 루이즈는 금세 미리암 가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그런데, 그 두 아이가 보모인 루이즈에 의해 살해됐다. 소설 <달콤한 노래>의 이야기는 그대로 연극무대로 들어온다. 일반적인 범죄소설이나 스릴러의 이야기 전개와는 사뭇 다른 작품의 구조는 각 인물의 세밀한 심리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호평 받았던 작품인 만큼 연극 <달콤한 노래> 역시 이러한 부분에 더 힘을 실었다.

“

뭐가 그렇게 극악함을 만들까, 결국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알고 싶은 것 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것, 근원적으로 사람마음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시스템의 부재, 빈곤이나, 가정폭력 등 범죄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경우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걸 걷어내고 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손에 잡히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고, 나는 거기서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확장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연극 <달콤한 노래>는 극단 달나라
 동백꽃이 선보여온 작품들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 작품인지도 모른다. 물론
 전혀 결이 다른 것도 아니다. 이미
 전작들에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이면을 담아낸 작품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다만, 이번 작품은 그 시선을 조금 더
 안으로 끌어들인다. 부새롬 연출가의
 말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질문인지도
 모르겠다. 마음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흥미롭고
 반갑다. 연극무대는 여전히 연극이
 지닌 특성, 금기된 본성을 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숙명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규정할 수 있는 답이 없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시선이 아닐까. 오랜만에 만나는
 달나라동백꽃의 <달콤한 노래> 역시
 그런 지점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